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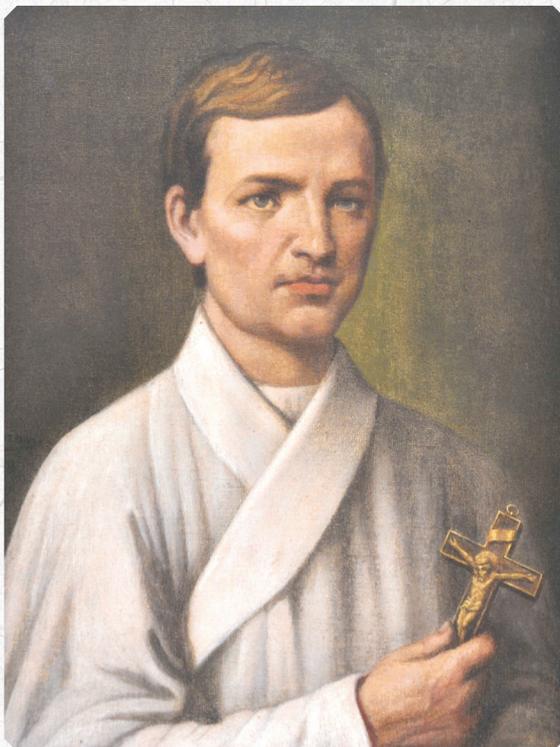
신앙신조들의 열정과 사랑을 이어가는 교구공동체의 해

성 도리 헨리코 신부 (1839-1866)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76
(시편 144,15)

프랑스 뤼송 교구 출신인 김 신부는 파리의방전 교회 소속으로 1864년에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5월 조선에 입국하여 용인 손골에 부임하였다. 순교하는 날까지 운명을 함께한 서 신부와 가깝게 지냈으며,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천성이 온순하고 친절하여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는 손골에서 지내는 동안 교우들이 자신을 ‘김 신부’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기뻐하였는데, 그것은 한국에 김씨 성을 가진 순교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연 김 신부는 자신의 소원대로 입국한 지 10개월 만인 1866년 체포되어, 3월 7일 새남터에서 동료 사제들과 함께 27세의 나이로 참수되었다.



소장처 _ 파리의방전교회 본원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에라, 신앙의 꽃)」 성인화 · 약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제 1 독 시 창세 3,9-15
- 회 답 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제 2 독 시 2코린 4,13-5,1
- 복 음 받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 복 음 마르 3,20-35
- 영 성 제 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참 가족이 그림습니다.



이명재
라파엘 신부
오송 본당

성 남종삼(南鍾三) 세자 요한(1817-1866.)은 충주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두루 역임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직이 신앙생활에 저해가 될 때는 언제든지 관직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원군 시대에 박해가 시작되어 자신도 체포될 것을 알고 순교할 각오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부친 남상교 아우구스티노는 말합니다. “네가 충성스러운 신하의 도리는 다했다만 신앙 때문에 분명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네 사형 선고문에 네가 서명을 하게 되거든 성교(聖敎)에 대해 욕된 표현은 일체 하지 않도록 하라.” 아버지는 아들의 옳음을 믿고, 아들이 하려는 일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척이라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나라에 상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는 집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안에 남종삼이라는 자가 나타나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허황하고 요망스러운 교리에 물들어 오랑캐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남종삼을 잡아 사형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름만 친척이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이 베엘제불에 들렸다 하고... 더러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들 하는 소문을 납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사탄과 악마와 대적하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친척(혹은 추종자)들이 사탄과 악마 대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복음 뒷부분은 예수님의 가족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도 같은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들은 어머니이고, 형제들이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이런 가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가족이 아닌가 합니다.

메마른 우리 주위에 참 가족이 그림습니다. 죄를 짓고 떠나가는 아담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지상 천막집인 육신이 허물어지면 영원한 집을 주시는 하느님처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에 겨워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잡아 주는 참 가족이 그림습니다. 나도 아프지만 나부터 참 신앙의 참 가족이 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

.....

.....

.....

.....

‘그리스도왕으로서의 예수님’
이콘화, 작자 미상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최양업 신부 선종 163주년 기념 담화(발췌)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의 날’을 지내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1821-1861년)의 선종 163주년 기념일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쉬 없이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선 ‘길 위의 목자’셨고, ‘땀의 순교자’셨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오늘 최양업 신부님의 선종일에 특별히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기원하면서 ‘전구 기도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신부님의 신앙과 영성을 오롯이 따르며 살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시복을 위한 전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찰에 따른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안건은 이미 2016년 교황청 시성부에서 영웅적 덕행에 관한 성덕 심사를 통과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를 승인하시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가경자’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다음 절차는 기적 심사입니다. 순교자의 경우에는 성덕 심사를 통과하면 복자로 선포되지만, 최양업 신부님처럼 증거자인 경우에는 성덕 심사 이후에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적 심사는 최양업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여 얻은 다양한 은총 체험 가운데 특히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례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최양업 신부님께 청하는 전구 기도는 특별히 위중한 질병을 앓

고 있는 사람(본인, 친지 등)의 기적적 치유를 위하여 최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람의 치유를 지향으로 주모경, 목주 기도 등과 함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기도문’을 바쳐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구에 배포된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익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전구 기도를 바칩시다. 이 전구 기도가 아픈 이들의 기적적 치유를 청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바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느님의 자비 안에 모든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기도하신 최양업 신부님을 닮아, 우리 또한 항구한 기도로써 희망 없이도 희망하고, 고통을 겪는 이웃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법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2024년 6월 15일 최양업 신부 선종 163주년 기념일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 시성 기원 및 탄생 200주년 기념 세례 성당 봉헌식



명에목 성지(담당 _ 김상수 블라시오 신부)에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선종일을 맞아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 시성 기원 및 탄생 200주년 기념 세례 성당’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신앙 선조들의 피와 땀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새롭게 나기를 원하며 하느님의 영광에 초대합니다.

- 일시 _ 6월 15일(토) 오후 2시
- 장소 _ 명에목 성지(보은군 속리산면 구병길 18)
- 주례 _ 교구장 김종강 시문 주교
- 문의 _ 543-0691 사무실



서로 사랑하여라

정은오 요안나 / 시인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새 한 마리가 반쯤 열린 창문 앞을 휩 날아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 언제 어느 때 종착역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을 뿐!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길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현재까지 인간의 걸어온 길을 한 줄의 긴 시간의 선상에서 보았을 때 그 긴 시간 중 한 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출발지로 되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이미 시작해서 걸어가고 있다.

허방 짚고 살다가 세상에게 먹살 잡힌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누가 알았겠나 인간의 한 생애가 껌껌 감았다가 뜬 눈썹같이 짧은 순간이었을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생명을 한칸 한칸 지워가는 지우개 같은 거라서 닳아 없어지면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인 줄 생각 못했다.

일생을 빈민 구제 운동에 헌신한 프랑스 작은형제회 소속 피에르 신부는 “인생이라는 여행은 사랑을 알기 위한 짧은 여정이다. 삶이란 것이 예수님 말씀의 주제이며 핵심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의 여행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피에르 신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겨울 극심한 추위가 닥치자, 집도 없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파리에 임시 구호소를 만들었다. 낡은 이층집을 수리해 ‘엠마우스’라는 무료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 이후 엠마우스는 빈민을 돕는 세계적인 공동체로 변화 발전했다.

피에르 신부님의 말씀! “하느님은 곧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사랑의 본질은 무한한 사랑과 책임이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지 마라.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미움과 증오도 필요하다.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해서는 밤의 어둠을 통해서만 가능하듯.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가려면 용서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용서의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이렇게 짧은 귀한 생을 고통과 번민이라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할 것이다. 그것이 더 억울한 일이 아니겠나!

우리는 관계가 힘들 때마다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힘이 든다. 상대방이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사랑 말고 한없이 퍼주기만 하는 주님이 하시는 바보스러운 사랑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천국이라는 여행의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마음 안에 독한 무기 하나를 단단히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과 기도이다.

사랑은 막연한 관념어가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능동사이다. 보다 넓게, 보다 깊이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는 사랑은 지우개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서로 사랑하여라”



ME 40주년 기념 미사

WWME 청주협의회는 5월 18일(토) 배티성지에서 교구장 김종강 주교의 주례로 청주ME 4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감사 미사는 '새롭게, 다시 뜨겁게'를 주제로 봉헌되었으며, 미사 후 성지순례, 가족행사가 이어졌다. ME는 부부의 올바른 소통을 도와주는 성가정 프로그램으로 교구에서는 1984년 시작하여 현재 204차 주말까지 약 4천 쌍의 부부와 성직자, 수도자가 ME를 체험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구 내 36개 본당에서 360명이 참석하였다.



〈사진 제공 _ 김용남 도미니코/청주 ME 홍보담당〉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피정

가정사목국은 5월 25일(토) 교구청에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피정'을 실시하였다. 피정은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루카 19,5)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성가 묵상과 미사로 이어졌다. 이번 피정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12개 본당에서 37명의 부모가 참석하였다.





교구장 동정

교구청

청년들을 위한 생명 책임 성교육

일시 _ 6.9.주일,14:00-16: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주제 _ "사랑은 생명과 책임이다."

대상 _ 만 19세 이상 모든 청년

회비 _ 없음 ※QR로 신청

문의 _ 220-1701 청소년사목국



모범교리교사 해외성지순례

일시 _ 6.15.토-23.주일

장소 _ 이탈리아

성소자 모임(예비신학교/여성수도성소자)

일시 _ 6.16.주일,10:00(고3/대학생/일반)

6.16.주일,13:30(중1-고2예신/여성)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50 성소국

미사·피정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묵주기도 피정

일시 _ 6.10.월,09:20-12:30

장소 _ 서운동 성당

군중후원회 미사

일시 _ 6.10.월,10: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봉헌을 위한 피정(33일 영성수련목상회)

일시 _ 6.13-7.18.매주 목,09:20-12:00

장소 _ 서운동 성당(6주간)

■ 사제 피정

일시 _ 6월 10일(월)-14일(금)

장소 _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외

■ 신학생 방학인사

일시 _ 6월 10일(월) 오전 11시

장소 _ 교구청

■ 최양업신부탄생200주년기념 세례성당 봉헌식

일시 _ 6월 15일(토) 오후 2시

장소 _ 멩메목 성지

■ 교구장 사목방문

일시 _ 6월 1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_ 두촌 성당

회비 _ 2만원(교재비, 스키폴라)

문의 _ 010-4153-438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철야기도회 성령목상회(8주간)

일시 _ 6.14-8.16.금,20:00-토,02:00

장소 _ 초정성령회관

회비 _ 2만원

문의 _ 213-9103, 010-5482-6744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청주 생명수호미사(임신부와 태아축복예식)

일시 _ 6.17.월,19:30(19:00부터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

문의 _ 210-1733 가정사목국

제205차 청주 ME 주말

일시 _ 6.21.금-23.주일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문의 _ 010-6230-5298, 010-8491-5298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8박 8일 _ 6.13-21, 7.4-12

3박 4일 _ 6.27-30, 7.18-21

1박 2일 _ 8.24-25, 9.21-22

40일 _ 10.4-11.2

장소 _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_ 031-953-6932, 010-4906-5722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자연순례 _ 6.21-23, 9.2-4, 9.7-9

추자도포함 _ 7.1-3, 9.11-14, 10.5-8

여름피정 _ 7.12-14, 7.20-22, 8.1-4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접수 _ 02-773-1455, 064-796-4182

꽃동네 성소자를 위한 "행복"피정 <나는 행복합니다>

일시 _ 7.6.토,13:00-7.주일,16:00

장소 _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_ 5만원(1인실/1박 2일)

대상 _ 고 2-35세 미만 젊은이

문의 _ 010-4468-5628 형제회

010-4830-2820 자매회

교육·모집

감독 본당 시설관리팀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성당 제반시설 업무 가능한 이

문의 _ 881-2809 사무실

보은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영양사 모집

문의 _ 544-5446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노인 일자리 구직자/채용 구인업체 수시 모집

문의 _ 218-1912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 각 6주)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최지원 수녀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 해설, 주원준 박사

뜻을 읽자!, 김민 신부

가톨릭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피부관리실
피부과 전문의 (사창사거리 다이소 옆 2층)

피부과 전문의 / 의학박사
양태호 루카

266-6680~1

보은 대추먹은 흑염소한마리

흑염소 분양, 흑염소 고기, 흑염소 엑기스
보은 황토 생대추, 건대추

김지환 요한 | **010-5833-6541**

속성새우젓·각종 발효액젓·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불젓갈] 총구역 기금 마련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멩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카

신안탈수햇소금 20kg
택배비 포함 4만 8천원

010-7722-7711

백합훈수방, 백합한복대여

40년 전통 한복 디자이너 대상
24년 선물 증정 감사 이벤트

김하철 안드레아
김은정 에피파나

222-9922
중앙공원 맞은편 한복거리

성모치과의원(충주)

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보철치료
통합 치의학 전문의 진료

치의학 박사 안성준 야고보
치의학 박사 지정현

851-7528
중소기업은행 앞

청주탑엔도내과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당일 검사 및 진료 가능/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규생빌딩 5층)

고선희 미카엘라
홍의실 료사

715-7572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접수 _ 02-3276-7733, center.jesuits.kr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성심노인요양원 주간요양보호사 모집
 서류 _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문의 _ 214-8501 ※09:00-18:00 근무

안내·기타

가톨릭청소년센터 고해성사(14:00부터)

일시 _ 6.10.월, 6.24.월(평신도)
 6.17.월, 7.1.월(성직자/수도자)
 집전 _ 안구열 신부(메리놀외방전교회)

재속프란치스코회 루도비코형제회

일시 _ 6.15.토,13: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공소사도직 회의

일시 _ 6.15.토,15: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회 진천보나벤투라형제회

일시 _ 6.16.주일,13:00
 장소 _ 진천 성당

양업회(신학생부모모임)

일시 _ 6.16.주일,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안나형제회

일시 _ 6.16.주일,15:00
 장소 _ 수동 성당

※지원자 문의 _ 010-7470-8659

2024 한국 살레시오 청년대회

일시 _ 6.28.금-30.주일
 장소 _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대상 _ 가톨릭 청년 누구나
 회비 _ 일반 8만원/대학생 7만원
 문의 _ 010-9630-1988, ksyd@sdb.kr

6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제1회 교구 신앙체험수기 공모전

■ 공모내용

-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과의 진솔한 만남
- 복음실천의 삶에서 체험한 신앙의 기쁨
- 다양한 선교체험 사례
- 삶의 위기 순간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체험

■ 공모방법

- 제출형식 : 산문형식(수필) A4 3-4장(1인 1편)
- 공모방법 : cyh0279@hanmal.net으로만 접수
- 작성방법 :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후 양식 확인
 2) www.cdcj.or.kr 알림/수기 공모전 참조
- 일정 : 마감/7.28.주일, 발표/9.13.금-교구 홈페이지
 시상식/9.28.토 제26차 평신도도보성지순례 파견미사중
- 상금 : 150만원 상당(대상1, 특별상1, 우수상2, 장려상5)
- 문의 : 010-9406-0202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 · 출판 · 광고 · 성경필사용지 제작 · 판매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마리아의작은자매회	수시로	서울 후암동 수녀원	010-5690-1099
작은형제회	6.15.토,15:00	대전 목동 성당	010-5605-7097
천주성의요한의료봉사수도회	6.15.토,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벨톤 보청기 총주지사
 청각복지카드 소유자 (무료 출장, 상담)
 10만원대 구입 가능
 원장 주영호 요셉 | **010-8335-0516 | 857-9494**

증평 현대 장례식장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환영, 신자 특별 우대
 증평성요셉공무원묘지관리위원장 김영태
 김영태 프란치스코 | **010-5465-2964**
 박태수 요셉 | **010-4350-5713**

카톨릭병원 정형외과
 "관절 및 척추질환 치료병원"
 사직동 사거리 교보생명 맞은 편
 김지목 레 오 | **274-4401~2**
 김지영 라파엘라

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낮병원
 임상심리사 7명, 심리상담, 당일 종합심리검사
 일반보험가(30%), 보호1,2종차상위(0%)
 전문의 최영라 경원프란치스코 | **234-2462, 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성경, 선자연

라파엘 가을특선 성지순례안내
 터키,그리스 409만원(9/16, 10/6, 10/20 출발)
 →동반자 100만원 할인 특가
 대표 유재구 요한 |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가톨릭 여행사
 10월 7일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3일
 11월 21일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대표 최도형 야고보 | **010-5235-3533**